

북한산 네오비아그라 관심고조...

조선, 류일남 박사 개발 YR은 명약 소개 ... 관절염에 비만증까지

북한이 최근 노화방지와 성기능장애 치료약을 개발하고 이름을 <네오비아그라>로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4월17일 입수된 북한화보 <조선> 4월호는 조선동방측효성약물센터에서 최근 <네오비아그라-YR> 개발에 성공했으며, 사람들에게 노화를 방지하고 젊음을 주며 장수에도 좋은 비방으로 내외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소개했다.

북한 약리학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류일남 박사가 개발한 YR(청춘 부활)은 “불치성 허리아픔, 어깨아픔, 관절염, 비만증, 간염, 뇌동맥 경화증 등에 치료 효과가 높은 명약”이라고 소개했다.

또 오늘날 임상 약리학적으로 가장 발전된 남녀 성기능 장애 치료약이며, 특히 성기능 촉진제로 여성 성기능 저하증에도 특효가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도했다.

네오비아그라-YR은 성기능 촉진효과를 갖는 실데나필 계열 유도체와 활성펩티드 외에도 고려약초 성분, 생물활성 다당체, 그리고 세포, 조직, 신경 재생을 돕는 천연 부활제 10여종을 섞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2005/04/19>